





서가풍경

젊은 날로 회귀하는 노학자의 열정

서울대 김학주 명예교수의 서가

대학에서 40년 동안 몸담았다 퇴임한 교수의 서재라면 고즈넉한 정경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지나온 학문의 길과 세월을 반추하며 문자의 감옥에서 놓여나는 것도 노년의 복이런만, 김학주 명예교수(67, 서울대 중문과)는 그렇지 못하다. 외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한탄해야 할 지경이다.

관악산 자락에 마련한 연구실에 들어서면 김교수는 차 한잔 마실 틈을 내기도 버겁다. 책상 위에 쌓인 한적과 씨름하고 교정지의 재촉에 마음이 조금해진다. 44권으로 예정된 《김학주 전집》(신아사)

작업이 '노복' (老福) 대신 '일복' 만 안겨줬다. 요즘에는 1960, 70년대에 초역한 《시경》과 《순자》를 손질하고 있다.

“요즘 20, 30년 전의 내 젊은 시절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와 미숙함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의 열정도 새삼스레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전의 의미를 깨우치는 맛도 있습니다. 《순자》에 '미의 연년' (美義延年)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남을 위해 배려할 때 오래 산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더군요.”

김교수의 서재는 네 곳으로 분할돼 있다. 거실에는 《사해》(辭海)를 비롯한 사전류가 점령하고 있고, 각 방마다 경전, 중국문학 관련서, 민간연희 연구서 등이 정리돼 있다. 특히 중국에서 수집한 300여개의 탈과 가면이 모여 있는 방은 김교수의 서재를 이채롭게 한다.

“대학원 시절 중국의 전통연극인 나희(雜戲)에 관심을 기울였죠. 하지만 중국문학 개론서와 고전번역에 힘쓰다보니 자연스레 희극에서 멀어지더군요. 퇴임 후야 예전의 관심을 되찾게 된 거죠. 요즘 젊은 날로 회귀하는 느낌입니다.” - 박천홍 기자

